

제주동회천향토지
濟州東回泉鄉土誌

새미
SAEMI



동회천 향토지 ‘새미’를 펴내며

우리 마을이 향토지 발간 준비를 시작한 것은 1993년이었습니다. 당시 전호범 초대 발간 위원장을 비롯한 발간위원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마을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제주 곳곳을 반년여 동안 돌아다니기도 하고, 설촌 역사를 가늠해 보기 위해 제주대학교 박물관 연구원들과 함께 현지답사를 하며 고증을 얻기도 하고, 전안생, 김평령 등 마을 어르신들의 구전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발간 준비는 일찍이 시작됐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해 안타까워 하다가 2012년 마을 정기총회에서 발간사업을 결의한 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정리했지만, 옛 문헌기록 자료가 너무나 귀해서 많은 부분 구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을역사의 큰 흐름은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주민들이 잊지 않고 풀어낸 기억과 저마다 소중하게 간직해온 과거 사진들이 내용을 구성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20년 전 초대 발간위원들이 마련해둔 초안이 든든한 토대가 됐음을 밝혀둡니다.

향토지 발간 작업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우리 마을이 간직해온 새미하로산당과 석불, 새미물 등의 문화유산과 돈독한 공동체 정신의 가치를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됐다는 점입니다. 마을 선조로부터 구전돼 오던 옛이야기가 최근 마을 안에서 발굴된 신석기 시대 유적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작지 않은 수확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제주회천동유적 문화재발굴조사보고서》를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마을주민 거의 모두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4.3 이후의 마을 재건 이야기는 마을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더욱 다양하고 알차게 담아내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20년 동안 기다리던 향토지 발간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는 뿌듯함으로 위안을 삼아봅니다. 아무쪼록 선조들의 빛나는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3년 5월

동회천 향토지 발간위원 일동

“동회천 마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집대성한 향토지”

사랑하는 동회천 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회천 마을의 향토사와 문화, 주민생활 등 동회천이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한 향토지 《새미》가 발간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고장의 향토사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번 향토지 창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주신 김재호 동회천마을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뭄 속에서도 신선한 물을 끊임없이 쏟아내던 동회천 마을의 옛이름인 ‘새미’의 샘물을 마시고 미인과 훌륭한 인물이 많이 탄생했고, 무병장수하였다는 고증은 새미가 동회천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괴질이 창궐하던 시절에도 동회천 사람들은 무사하였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 가슴속을 흐르는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와 고유한 문화는 앞으로도 면면히 전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상 오
제주시장



과거의 변천기록은 역사로 집대성되게 마련이고, 이를 활용하여 미래발전의 좌표로 삼게 됩니다. 그렇기에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역사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뜻 있는 일이며, 오늘을 사는 후세들에게 선대들의 삶을 올바르게 보여주고 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향토지 창간을 통해 동회천 마을에 얹힌 역사자료와 문화자원을 캐내어 정리하고, 마을의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과정은 편찬위원님들에게도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미》 발간을 계기로 우리 후손들에게 회천동의 자랑스러운 뿌리의식을 심어주고 향토애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향토지 《새미》가 동회천을 더욱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훌륭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향토지 발간을 주관해 오신 편찬위원회와 마을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뜻을 포함니다.

향토지 발간을 통해 회천동민의 공동체의식이 더욱 끈끈해지고 자긍심이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동회천 마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역사 지키기’의 한 갈래

동회천마을의 역사와 문화, 지연환경, 그리고 주민들의 삶을 담아낸 향토지 《새미》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동회천마을의 자랑스런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집이 탄생하기 까지 애써주신 김재호 마을회장님을 비롯한 편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동회천마을에는 우리가 결코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만병통치약으로 불릴 만큼 유명한 새미물과 절이 들어설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새미하로산당과 신목인 팽나무, 오석불 등 그리고 4·3의 아픈 기억 등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기억들이 향토지로 인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한마을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곧 제주역사, 나라 역사를 정리하는 일과 맞먹는 고단하고 힘든 작업인데, 이 과정을 이겨내고 이렇게 소중한 향토지를 만들어 내신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후손들의 의지가 없다면 역사와 문화는 쉽게 잊혀 집니다.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왜곡 시도로 홍역을 앓고 있는 우리들은 이

안창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런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역사 지키기는 백두산과 독도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우리 고장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문화재를 소중하게 보존하는 것 모두 역사 지키기입니다.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제 자리를 찾아갈 때 우리 나라의 역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동회천향토지 《새미》는 단순히 한 마을의 기록을 만들어 냈다는 보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향토지를 발간하는 그런 단합되고 미래지향적인 마음으로 동회천 마을의 미래를 일궈나가 주시길 바라며, 동회천 마을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책

사랑하는 동회천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이며 분홍빛 벚꽃의 낙화를 아쉬워할 겨를도 없이, 계절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어느새 완전한 봄을 지나 뜨거운 여름이라는 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동회천 향토지 《새미》가 발간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은 가장 힘든 한 걸음입니다. 이처럼 처음을 열어 마을의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물심양면 애써주신 동회천 마을회 김재호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과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미’는 동회천 마을의 다른 이름으로, 1960년대 중반까지 마을의 식수로 이용된 동회천 샘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가물어도 끊임없이 흘렀다고 하니 마을의 이름으로 명명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함과 유구함의 대명사인 ‘새미’처럼, 앞으로 동회천 향토지로서의 《새미》에도 지역 주민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윤 두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현대사회는 문화와 예술이라는 감성을 기반으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의미 있는 가치’에 대해 새로운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가치’란 타인에게 의미가 있는 가치뿐만 아니라, 마을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정성을 들여 가꿔가는 삶, 즉 일상 모두를 얘기합니다.

이제는 마을의 이야기가 문화가 되고, 마을의 주인이 새로운 가치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회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며, 그러한 일상이 앞으로 동회천 향토지 《새미》에 사뻐히 녹아들기를 바랍니다.

동회천 마을주민 여러분 모두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마을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동회천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책자에 담은 향토지 《새미》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회천 마을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보존하기 위한 향토지 발간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하신 동회천마을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회천 마을의 설촌 이래 처음으로 발간되는 동회천 향토지 《새미》는 동회천의 전통과 역사를 재정립 하고자 지역 어르신들의 부단한 노력과 편찬과정을 거쳐 마을의 역사자료를 집대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선인들의 삶의 채취와 전통문화, 마을지명, 전해 내려오는 설 등의 잊혀져 가는 옛것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노력이야 말로 지금의 후손 들이 지속 이어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옛 것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희망을 엮어내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향토지에 실려 있는 소중한 기록들은 후세에도 동

최동수
봉개동장



회천 마을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된 향토지 《새미》가 동회천 마을의 미래를 밝히고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는데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향토지가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 발간사

4 / 격려사 / 제주시장 김상오

6 / 축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안창남

8 / 축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윤두호

10 / 축사 / 봉개동장 최동수

16 / 한눈에 보는 새미마을

18 / 마을 이름 변천사

오래된 이름, '새미마을' / 18

중좌면 새미마을 / 21

'ㄱ'은 새미마을'이었다가 '도래새미마을'로 / 21

'회천리'에서 '회천동'으로 그리고 '동회천마을'로 / 22

〈자연환경〉

27 / 밖에는 오름, 안에는 마루

28 / 마을을 이루게 한 용천수, '새미물'

31 / 심상치 않은 숲, '역적수월'

40 / 하천, 종인내

43 / 생명을 기르는 토양

47 / 마을과 함께 한 고목들

팽나무 / 47

산굴나무 / 49

배롱나무 / 52

〈역사〉

57 / 6천 년 전, 이곳에 누가 살았다고?

62 / 마을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63 / 고려와 조선의 사이, 역적수월

- 65 / 산물낭우영에서 다시 시작된 마을
- 66 / 조선시대 조정철이 본 새미마을
- 69 / 조선시대 국영목장의 흔적, ‘폭낭도’와 ‘하жат성’
- 71 / 일제강점기의 새미
- 73 / 어느 마을인들 기막히지 않으랴만..., 새미마을의 4·3
4·3 희생자 위령비 / 74
- 77 / 4·3이 끝난 뒤, 하루에 집 한 채씩 지어
- 79 / 협동과 단합으로 쓴 마을발전의 역사
마을의 구심점, 마을회관 / 82
문명생활이 시작되다 / 86
새마을운동 / 89
동천 김평진 선생은 누구인가? / 90
- 93 / 경제작물 복합영농으로 소득을 올리다
- 99 / 그린벨트로 묶이는 바람에...
- 101 / 작지만 단단한 마을
마을기금의 근원, 역적수월의 대나무 / 101
저온저장고와 쓰레기매립장 / 103
회천목장과 관광농원 / 108

〈문화〉

- 113 / 새미마을의 신앙은 문화재
- 116 / 수렵과 목축의 신을 모시는 새미하로산당
당긔의 준비 / 121
당긔의 제차 / 123
당신의 영험담 / 127
당제의 운영과 결산 / 129
- 130 / 산신놀이
- 133 / 석불과 석불제





제주지역의 포제 / 134

새미마을 석불제 / 136

절터와 화천사 / 143

제주돌문화공원에서 만나는 새미마을 문화 / 145

147 / 허한 곳을 보하라, 답다니와 거옥대

150 / 옛 지명과 그 유래

165 / 옛날 옛적에

새미수월이 역적수월이 된 까닭 / 165

“이 동넨 쇠 나기 전에 사람이 살았져” / 166

골충이 된 방묘들이 꽤 있었는데... / 167

호열자 막아준 백발노인 / 168

힘센 대식가 김진선 / 168

남의 마을 들돌을... / 169

귀신대가 나타나면... / 169

산이무덤 / 170

고려장 / 171

곤밥 할망 / 171

발담 하르방 / 172

방귀 때문에 놓친 고기? / 172

이런 부부, 저런 부부 / 173

동문 밖 최고 부자 / 174

175 / 새미마을에서 전해지는 민요

밧블리는 소리 / 175

아웨기 / 176

사데 / 177

마당질 소리 / 177

ㄹ래ㄹ는 소리 / 178

방에소리 / 180

시집살이 노래 / 181

애설 때 부르는 노래 / 181

애기 흥그는 소리 / 183

전래동요 / 184

〈삶과 생활〉

187 / 돈독한 공동체

물방에 / 187

‘흑굿디’의 추억 / 189

물이 귀하던 시절에 / 190

“우마일 아니거든 다투지 마라” / 192

초상은 반드시 함께 치러 / 193

195 / 잘못에 젖신 신던 시절

196 / 소박하지만 건강한 먹거리

197 / 가게가 없다?

198 / 우리 마을은 우리 스스로 지킨다

199 / 새미마을의 교육

삼양초등학교 회천분교가 문을 열다 / 200

잊지 못할 소천 고인호 선생의 서울 초청 / 201

안타까운 폐교 / 202

204 / 쌍둥이 골목의 비밀

206 / 106세 할머니가 밭일 하는 장수마을

〈부록〉

207 / 제주 회천동 유적

〈편집후기〉

271 / 발간위원회 일동





한눈에 보는 새미마을

새미마을은 제주시 도심지로부터 동쪽으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중산간에 자리해 있다.

마을의 동쪽은 조천읍 와흘리, 서쪽은 서회천동, 남쪽은 한라산, 북쪽으로는 삼양동에 닿아 있는데, 경계를 따라 선을 그어보면 남북으로 긴 모양새가 그려진다. 바닷가 쪽인 북쪽의 끝



은 해발 80m 지경에, 한라산 쪽인 남쪽의 끝은 해발 400m 지경에 자리한다.

새미마을의 법정동 이름은 ‘회천동’, 행정구역상으로는 제주시 봉개동 6통 1반에서 3반까지 세 개의 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3년 현재 96세대 229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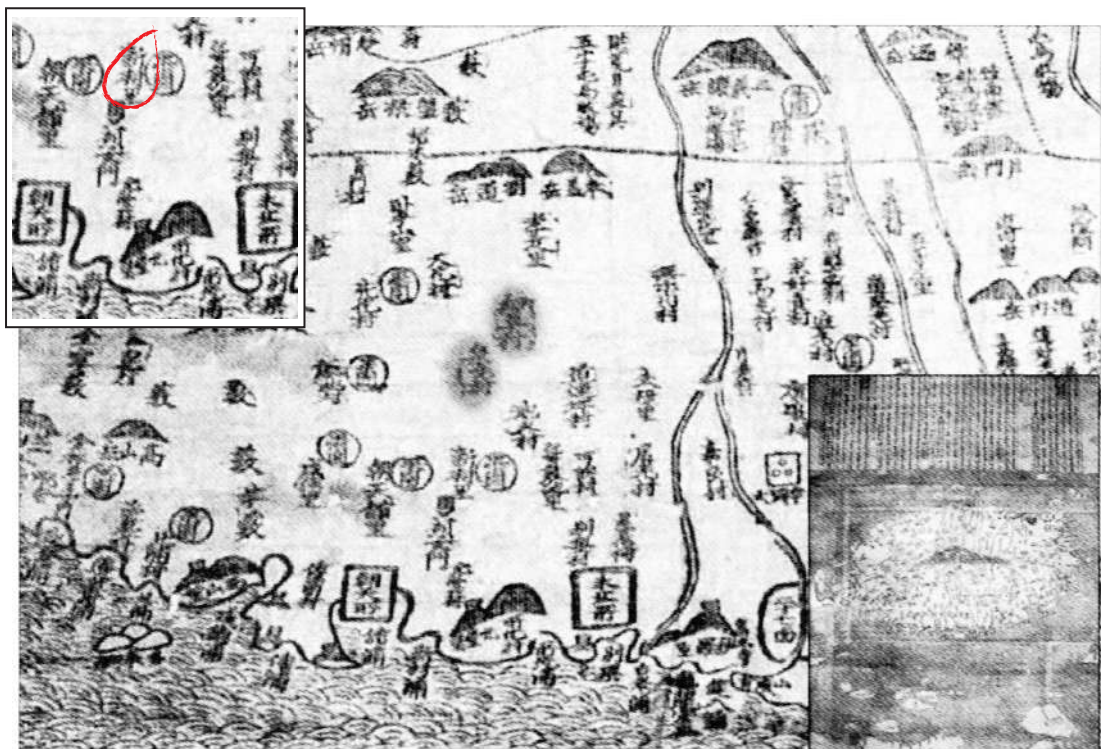
마을 이름 변천사

‘새미’는 ‘샘’을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이 마을 이름에 ‘새미’가 붙게 된 것은 이름대로 ‘샘’이 솟는 마을이기 때문이다.

고지도와 문헌 등을 통해 살펴본 새미마을은 천미촌, 천미리, 세천리, 회천리 등 여러 이름으로 표기된다. 현재의 이름 ‘동회천’이 되기까지의 변천사를 정리했다.

오래된 이름, ‘새미마을’

새미마을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지도는 1678년 이후부터 1700년 사이에 제작된 《탐라도(耽羅圖)》다. 이 지도에는 ‘천미촌(泉味村)’이라 표기돼 있고, 바로 옆에 ‘세초촌(細草村)’이 표기돼 있다.



1678년에서 1700년 사이에 제작된 《탐라도》, 새미마을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지도다. ‘천미촌’이라 표기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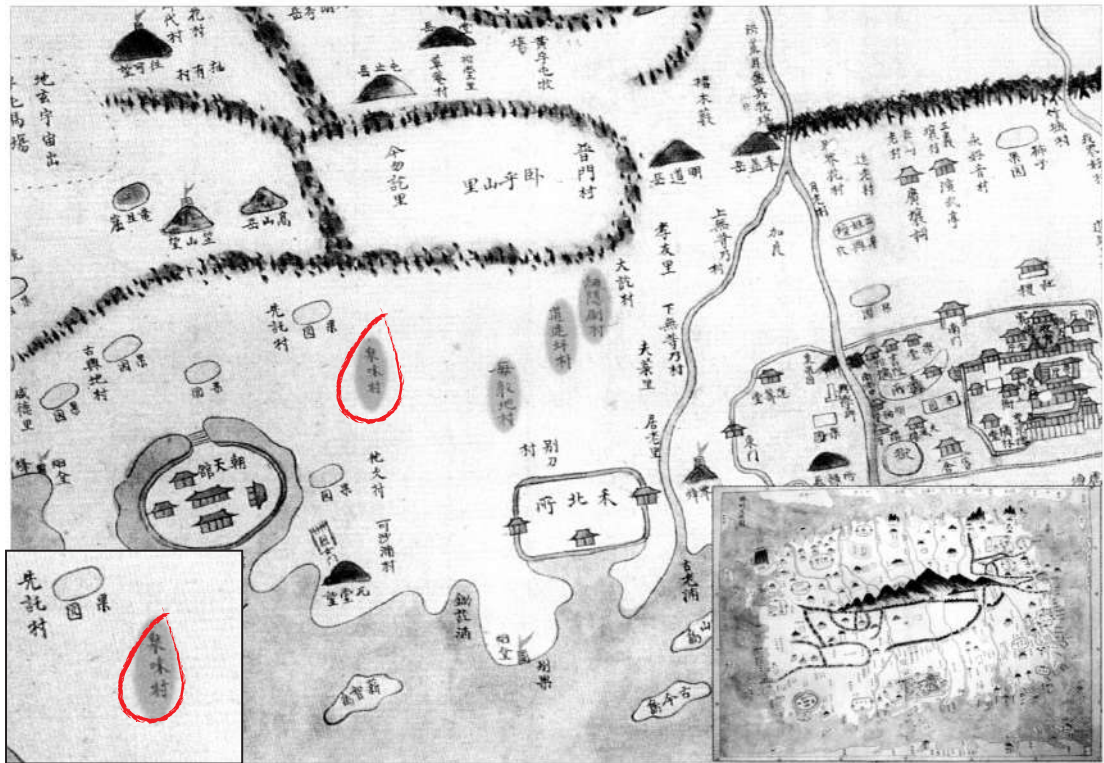


이형상 목사가 1702년에 제작한 화첩 《탐라순력도》 중 〈한라장축〉. 이 그림에는 새미마을이 ‘천미’라 표기돼 있다.

‘천미촌(泉味村)’은 ‘새미마을’의 한자차용표기다.

한자차용표기법은 옛날에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기록하던 방법으로, 한자의 소리와 새김 가운데 어느 것을 차용하느냐에 따라 ‘음(音)’과 ‘훈(訓)’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들을 한자의 본뜻에 맞게 사용하느냐, 본뜻을 버리고 표음 곧 소리표시로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讀)’과 ‘가(假)’로 나뉜다.

한자를 음으로 읽고 그 본뜻도 살려서 차용한 글자는 음독자(音讀字)라 하고, 한자를



1709년에서 1716년 사이에 제작된 《해동지도》 중 <제주삼현도>. ‘천미촌’이라 표기된 새미 마을 위치를 찾아볼 수 있다.

음으로 읽되 그 본뜻을 버리고 표음자로만 차용한 글자는 음가자(音假字)라고 한다. 한자를 훈으로 읽고 그 본뜻도 살려서 차용한 글자는 훈독자(訓讀字)라 하고, 한자를 훈으로 읽되 그 뜻은 버리고 표음자로만 차용한 글자는 훈가자(訓假字)라고 한다.

《탐라도》에 나타난 천미촌의 ‘천(泉)’은 ‘샘’의 제주토박이 말 ‘새미’의 훈독자 표기다. ‘미(味)’는 ‘새미’의 둘째 음절 ‘미’의 음가자 표기이고 ‘촌(村)’은 ‘마을’의 훈독자 표기다.

《탐라도》뿐만 아니라, 1702년에 제작된 이형상의 《탐라순력도》 중 <한라장축>에는 “천미”, 1709년~1716년 사이에 제작된 《해동지도(海東地圖)》중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에도 천미촌이라 표기돼 있다.

이로써 이 마을은 1600년대 무렵 이전부터 ‘새미마을’이라 불렸고, 당시에는 새미마을과 그늘새미마을[細草村]로 구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좌면 새미곶을

1765년부터 1766년(영조 41~42년) 사이에 윤시동 제주목사가 편찬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권5 <제주(濟州)·면촌(面村) 증(增)>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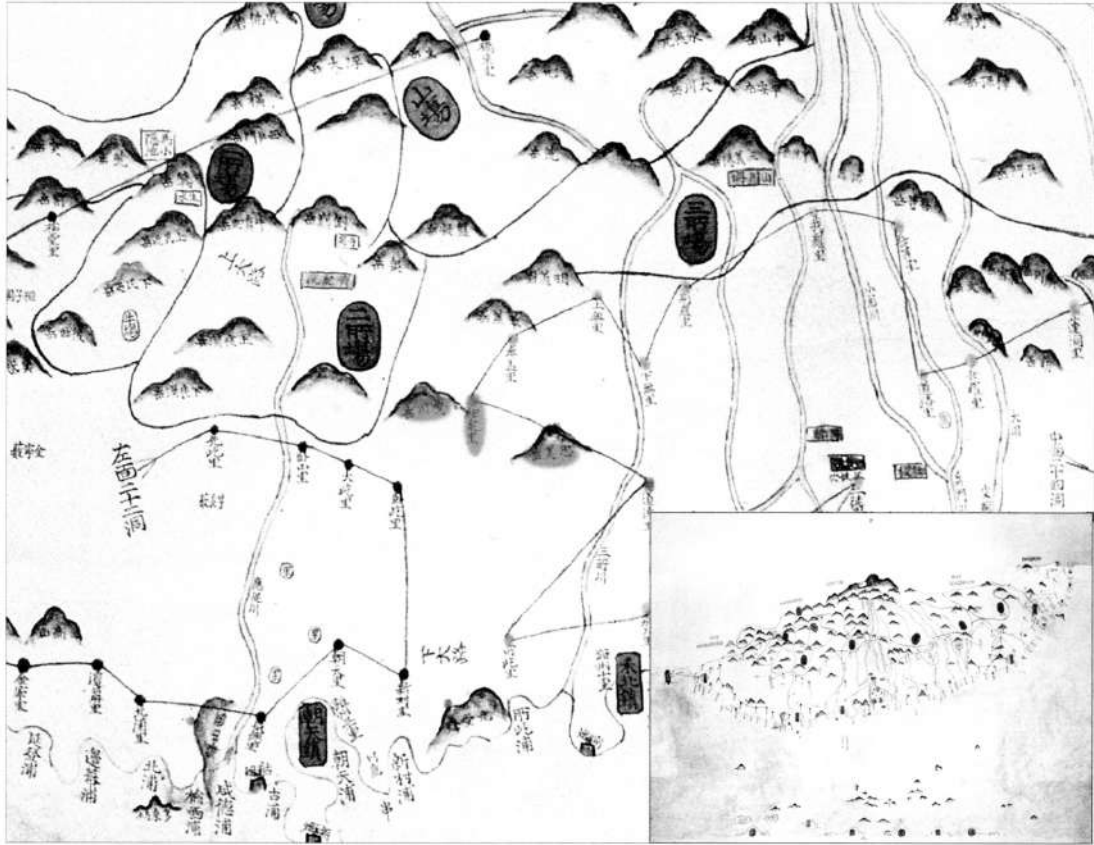
“중면(中面)에는 소면(小面)이 3개 있다. 3개의 소면으로는 중좌면(中左面), 주중면(州中面), 중우면(中右面)이 있다. 이 가운데 중좌면에는 별도, 서흘개, 도련평, 천미, 와호홀, 세은쇄, 상봉개, 하봉개, 무등천, 별라화 등 10개 마을이다.”

1785년(정조 9년)에 편찬된 《제주읍지(濟州邑誌)》의 <방리(坊里)·중면(中面)>에는 “세쇄리(細刷里: ㄹ는 새미곶을의 한자차용표기)는 제주 동남쪽 15리 거리에 있다. 백성의 집은 44호이며 남자가 91명이고 여자는 139명으로 남녀 합계가 230명이다. 천미리(泉味里: 세미곶을의 한자차용표기)는 제주 동남쪽 21리의 거리에 있다. 백성의 집은 36호이며 남자가 77명이고 여자는 101명으로 남녀 합계가 178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즈음 새미곶을은 중좌면에 속해 있었고, 여전히 ㄹ는 새미곶을과 구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ㄹ는 새미곶을’이었다가 ‘도래새미곶을’로

1872년에 제작된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와 《제주지도(濟州地圖)》에는 세천리(細泉里: ㄹ는 새미곶을의 한자차용표기)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1872년 이전에 ㄹ는 새미곶을과 새미곶을을 통합하고 두 마을의 머리글자를 따서 ‘ㄹ는 새미곶을[細泉里]’이라 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18년 뒤의 기록에는 ‘도래새미곶을’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1890년(고종 27년) 《삼읍환폐금서막혁거절목(三邑還弊及庶癘革祛節目)》의 <본주(本州)-중면(中面)>에 ‘도래새미곶을[回泉里]의 인구가 227명’이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그즈음 ㄹ는 새미곶을[細泉里]이 도래새미곶을[回泉里]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872년에 제작된 《제주지도》. 이 지도에도 ‘ㄴ눈새미막을’ 곧 ‘세천리’로 표기되어 있다. 이 후 ‘ㄴ눈새미’라는 이름은 ‘도래새미[回泉]’로 바뀌게 된다.

1904년(광무 8년)에 편찬된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의 <제주군(濟州郡)-중면(中面)>에는 “도래새미[回泉]의 연기가 나는 집은 94호다. 남자 166명과 여자 146명을 합하여 남녀 합계는 312명이다. 초가집은 295칸이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마을 규모를 짐작케 한다.

‘회천리’에서 ‘회천동’으로 그리고 ‘동회천마을’로

제주군 중면에 속해있던 도래새미막을은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제주면에 속하게 되면서 ‘회천리’가 된다.



1919년에 제작된 《제주지도》는 행정명 회천리(回泉里) 안에 세미동, 세천동, 야생동이라는 자연마을이 있음을 표기하고 있다.

1919년에 제작된 《제주지도(濟州地圖)》를 통해 행정명은 도래새미곶을[回泉里]이고 그 안에 세미동(細味洞), 세천동(細泉洞)과 야생동(野生洞:드르생이곶을)이라는 자연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9년 <제주도생활상태조사>에 당시 “제주면 회천리는 161호에 남자가 320명, 여자는 332명으로 남녀 합계가 652명”으로 기록돼 있다. 그리고 《제주도편람(濟州島便覽)》에는 1930년 “회천리의 호수는 161호이며 인구수가 844명”이라고 기록돼 있어, 1년



1985년에 마을 입구에 세웠던 표지석(왼쪽)과 2009년에 새로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는 표지석(오른쪽).

사이에 92명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55년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되면서 25개의 리가 40개의 동으로 개편되고, 회천리는 제주시에 편입되어 ‘회천동’이 된다. 그리고 1962년 40개 동이 14개 동으로 합병·개편되면서 행정구역상 봉개, 회천, 용강 등 3개 동이 봉개동으로 합쳐져 오늘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새미마을의 행정은 봉개동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고, 법정동 이름은 회천동이며, 그 새마을인 서회천과 구분해 ‘동회천’이라 부르고 있다.



자연 환경

밖에는 오름, 안에는 마루
마을을 이루게 한 용천수, '새미물'
심상치 않은 숲, '역적수월'
하천, 종인내
생명을 기르는 토양
마을과 함께 한 고목들

밖에는 오름, 안에는 마루

새미마을이 자리한 곳은 해발 80~400m 지대에 이르는 중산간이다. 제주의 오름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이 중산간인데, 독특하게도 새미마을의 경계 안에는 오름이 없다. 그러나 새미오름, 바농오름, 지그리오름과 죽은지그리오름, 민오름, 절물오름, 명도암 오름, 사라봉, 별도봉, 원당봉 등의 오름들이 빙 둘러쳐져 있는 듯 보인다. 더불어 오름들이 마을 지경 바깥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마을을 보호하는 듯 느껴진다. 마을 안에 오름은 없지만 오름들의 기운을 오롯이 받고 있는 것이다. 마을어른들은 마을 자체가 절물오름에서 원당오름으로 이어지는 지맥 위에 놓여있다고 그 두 오름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

그렇게 마을 전체의 바깥은 오름들이 둘러싸고 있고, 마을 안에서 특히 주민들이 모여 사는 중심부 주변에는 두툼한 마루 능선이 둘러져 있다. 마을 중심지에 들어서면 어쩐지 포근하고 편안해지는데, 바로 그 마루 능선이 이룬 지세가 든든한 어깨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새미마을은 강풍이나 큰비 따위의 곳은 날씨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별로 없었다.

새미마을에 자리한 마루는 특히 마을 중심부의 서쪽 방향에서 안쪽을 감싸 안은 지세를 이루고 있다. 마을에서는 화천사 지경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뻗은 마루를 ‘윗상장 마루’, 북쪽으로 뻗은 마루는 ‘알상장 마루’라 부른다. 윗상장 마루는 서회천과의 경계에 열추 자리해 있고, 알상장 마루는 도련과 삼양 그리고 신촌과의 경계로 이어진다.

마을을 이루게 한 용천수, ‘새미물’

상수도가 개발되기 전, 제주사람들은 용천수와 봉천수를 식수와 생활용수로 이용했다.

용천수는 지층 속을 흐르던 지하수가 지표와 연결된 지층이나 암석의 틈을 통해 솟아나는 샘물로 주로 해안가에 밀집돼 있다. 그래서 제주의 오래된 자연마을들은 대부분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는 용천수가 마을입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걸 반증해 준다. 봉천수는 빗물을 일컫는데, 중산간마을에서 주로 이용했다. 하천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웅덩이에 고인 빗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일부러 못을 파서 빗물을 받아 이용하기도 했다.

제주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했던 물터를 제주에서는 ‘물통’이라 불렀다. 그리고 물의 흐름에 따라, 가장 위쪽은 마시는 물통, 그 다음은 채소 등 먹거리 재료를 씻는 물통, 그 아래는 빨래하거나 목욕하는 물통 등으로 구분해서 사용했다.

용천수는 상황과 수량 그리고 쓰임새 등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부르기도 했다. 바위틈에서 새어나오거나 땅속에서 솟아 흐르는 용천수는 ‘통물’이라 부르고, 바닷가나 하천가의 큰 바위 밑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는 ‘엉물’ 또는 ‘엉덕물’이라 불렀다. 그리고 암석의 틈이나 움푹 파인 땅 구멍에서 물이 솟아나는 용천수는 ‘고망물’, 비가 많이 올 때에만 솟아나는 물은 ‘구멍물’이라 불렀다.

그런가하면 용출량이 많거나 차지하는 면적이 넓은 물 또는 마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물은 말 그대로 ‘큰물’이고, 반대로 용출량이 매우 적은 물은 ‘생이물’이라 불렀다. ‘생이’는 새를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새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줄줄 흐르는 물이라 해서 ‘생이물’이라 불렀던 것이다.

또한 사찰 주변이나 안에서 솟아 절에서 이용하는 용천수는 ‘절물’, 치성 등 정성을 드릴 때 이용하는 물은 ‘할망물’이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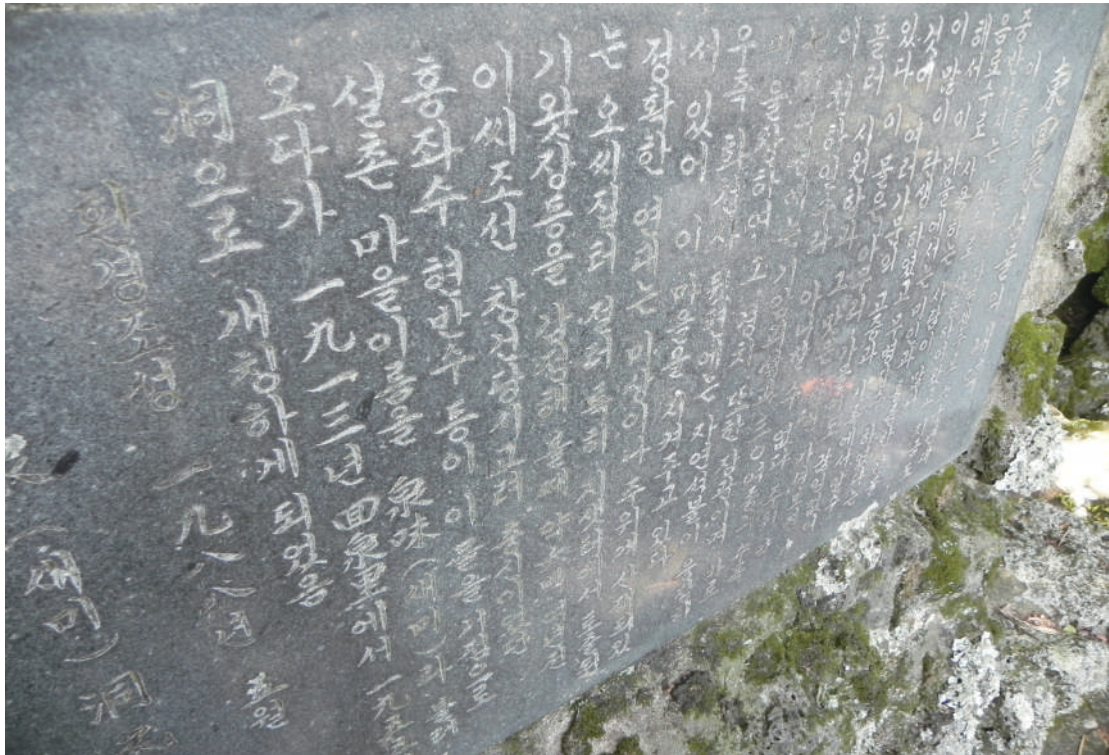
새미마을은 중산간마을들 가운데 아주 드물게 용천수가 솟아나는 마을이다. 그 물을 ‘새미물’이라 부르고 마을이름도 ‘새미’이니, 이 용천수로 인해 마을이 형성됐음을 알 수 있다. 새미물은 ‘역적수월’이라 부르는 숲의 주변 ‘화천사’라는 절 부근에 자



새미물. 중산간마을 중에서 아주 드물게 솟아나는 용천수다. 이 물이 있어 새미마을이 형성되었다. 새미물은 상수도가 개발되기 전까지 마을사람들의 생명수였다. 지금도 맑고 차가운 물이 끊임없이 솟아 흐른다.

리해 있는데, 사방이 5m 정도의 이끼 낀 석벽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온다.

새미물은 마을사람들의 젖줄이자 치성 등을 드릴 때 이용하던 신성한 물이었다. 바위틈에서 나오니 ‘통물’이요, 사찰 주변에서 솟아 절에서 이용하기도 하니 ‘절물’이고, 치성 때 쓰이고 있으니 ‘할망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그저 ‘새미물’ 또는 ‘새미숭물’이라고만 불렀다. 새미숭물의 ‘숭’은 숲을 이르는 제주도박이 말 ‘수월’에서 유래된 것이다.



새미물 입구에 샘물의 내력을 소개하는 글이 새겨져있다. 1988년 마을에서 샘물 주변 환경을 조성하며 만들었다.

새미물 입구에는 물의 내력이 새겨진 안내석이 있는데, 그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동회천 샘물의 내력

이 물은 순수한 자연생수로 가물어도 끊임없이 흘러 시원하고 1960년대 중반까지 식수로 사용하였고 지금도 음료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물로 인하여 미인과 훌륭한 인물이 탄생하였으며 무병장수하였다는 것이 여러 가문의 고증과 기록으로 남아있다. 주위 약 7천여 평에는 기암괴석, 30여 종의 수목이 울창하여 풍치 또한 장관이다.

오씨 집터, 절터, 특히 지삿터에서 토출된 기왓장들을 감정해볼 때 약 6백여 년 전 조선 창건 당시 고려충신이었던 홍좌수, 현반수 등이 이 물을 기점으로 설촌, 마을이름을 새미라 불러오다가 1913년 회천리에서 1955년 동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심상치 않은 숲, ‘역적수월’

“주위 약 7천여 평에는 기암괴석, 30여 종의 수목이 울창하여 풍치 또한 장관이다.”

이는 새미물의 내력을 전하는 안내석 내용의 일부로, 샘물 뒤에 우거져 있는 숲, 곧 ‘역적수월’을 말하는 것이다. ‘역적’이란 말 그대로 반역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고, ‘수월’은 가시 덩굴로 이루어진 숲을 뜻하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이곳에 왜 ‘역적’이라는 심상치 않은 이름이 붙었는지는 역사 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숲속 바닥은 여느 곳자왈처럼 온통 크고 작은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대나무, 종가시나무, 제주에서 ‘검북낭’이라 부르는 푸조나무, ‘폭낭’이라 부르는 팽나무, ‘떡कु실낭’이라 부르는 멸구슬나무, 곰솔, 상동나무, 무환자나무 등이 우거져 있고, 나무들 아래는 밤 일엽, 가는쇠고사리, 더부살이고사리, 꼬리고사리 등의 양치식물이 덮고 있다.



역적수월은 곳자왈이다. 바닥은 온통 크고 작은 바위들이 엉켜있고, 그 위로 숲이 이루어져 있다.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마을에서 이곳의 나무를 이용해 생활용품을 만들었고 뿔감으로 쓰기도 했다고 한다.

역적수월 안에서 바라본 하늘은 뿔뿔한 나무들로 들어차 있다.





역적수월 안에는 예전에 아름드리 거목이었을 나무의 밑둥에서 다시 가지를 뿜고 자란 맹아목들이 제법 눈에 띄고 마삭줄, 송악, 밤일엽, 고사리 등의 식물들이 바닥을 덮고 있다.





역적수월 속에 남아있는 움막 터의 돌담. 화천사가 생기기 이전, 이곳에 움막을 짓고 절로 이용했었다고 한다. .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마을에서 이곳의 나무들로 농기구를 만들거나 땔감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아름답기로 자란 나무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에 밑둥이 잘린 그루터기에서 여러 개의 줄기로 자란 맹아목들이 곳곳에 보여 숲의 오랜 역사를 전해주고 있다.

올해 58세인 마을주민 김동식 씨는 자신의 할머니에게서 “내가 시집 와 보니, 집에 커다란 도구리가 있었는데 역적수월에서 나무를 해다 만들었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할머니가 살아있다면 120세가 넘었을 터, 옛날의 역적수월에는 아름답리 거목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다.

숲속에는 누군가 돌담을 쌓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마을주민들은 “마용기라는 사람이 이곳에다 움막을 짓고 절로 이용했었다. 그 뒤 ‘아이 없는 여인들이 마용기의 움막에 와서 공을 들이면 아이가 생긴다더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절로 이용하던 움막은 4·3사건



이후에 마을사람들이 철거시켜버렸다.”고 이야기한다. 돌담을 쌓았던 흔적이 바로 그 움막 터라는 것이다.

역적수월에는 유난히 대나무가 왕성했는데, 마을사람들이 구덕 따위의 생활용품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대나무를 팔아서 마을기금을 마련하기도 했었다.

신촌리에서 전해지는 ‘갈치 낚는 소리’에도 새미마을의 대나무가 등장해 흥미롭다.

강남바둑 강갈치야 나 술은 석은 삼술이여
(강남바다 강갈치야 내 줄은 썩은 삼줄이여)

한 번 물엿 찹곳 땡겨보라
(한 번 물어서 찹곳 당겨보라)

지피 가면 진버텨이 얄이 가면 얄버텨이 물엿가라
(깊이 가면 긴 갈치, 얄게 가면 얄은 바다에 사는 갈치 물어가라)

쉐미 짐좌수찢 왕땃그르가찌 과작한 주제가 오랑
(새미 김좌수집 왕대나무 그루터기같이 큰 갈치 떼가 와서)

이 술 저 술에 우두둑 우두둑 물어보라
(이 줄 저 줄에 우두둑 우두둑 물어보라)



큰 갈치들이 떼로 몰려오기를 ‘새미마을의 왕대나무 그루터기’처럼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어부의 마음이 담겨있는 노동요다. 그만큼 새미마을의 대나무는 예로부터 질이 좋고 풍부하기로 유명했다는데, 바로 역적수월 덕분이었다.

대나무가 많아서인지 새미마을에는 대나무에 찢린 상처는 참깨를 씹어서 바르는 독특한 민간요법이 전해진다.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빨리 아물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대나무가 너무 많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대나무를 베어낸 곳에 참깨 씨를 뿌리기도 한다. 참깨 싹이 자라기 시작하는 곳에는 대나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하천, 종인내

새미마을과 조천읍 와흘리의 경계에는 ‘종인내’라 부르는 하천이 있다. 한자로는 ‘종인천(宗仁川)’이라 표기되는데, 한자로서의 ‘종인(宗仁)’ 뜻은 확실치 않다. 마을주민들은 물이 흐를 때 졸졸거리는 작은 내여서 부르게 된 이름이 아닐까 이야기한다. 그도 그럴 것이



상류 쪽에서 바라본 종인내. 상류 위쪽으로 밭이 형성돼 있어, 종인내는 원류가 없는 하천이라고 한다. 새미마을과 와흘의 경계선이기도 하다.

이 하천은 폭도 좁고 깊이도 얇다.

종인내는 원류가 없는 하천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자구남통’이라 부르는 곳에서 시작되는데, 그 위로는 밭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자구남통에서 시작되어 새미마을 북쪽 끝인 동수동까지 4km 정도 이어지다가 원당봉의 동쪽을 지나 바닷가까지 가 닿는다.

종인내는 평상시에는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건천이다. 비가 많이 내려야



하류 쪽에서 바라본 종인내. 오랜 세월 자연의 상태로 있었는데, 2008년 하천 정비 공사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물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물이 넘치도록 크게 터지지 않는다.

새미마을에는 “종인내가 두 번 터지면 그해 흉작이 든다”, 또 “종인내가 세 번 터지면 술을 엮어 놓는다”는 말이 있다. 이 하천이 두세 번 터질 정도면 비가 지나치게 많이 온 셈이니 농사를 망치게 되고, 더불어 술에다 뭘 해서 먹을 것도 없다는 뜻이다.

비가 내리고 나면 종인내에 있는 바위들 가운데 움푹 파인 곳에 물이 고여 물통을 이루곤 했다. 상수도가 생기기 전, 종인내에 이루어진 조그마한 물통의 물은 먹기도 하고, 조금 큰 물통에서는 빨래도 하고 길어다 허드렛물로 쓰기도 했다. 특히 ‘가죽통’이라 부르는 물통은 한 사람이 들어앉아 목욕하기에 좋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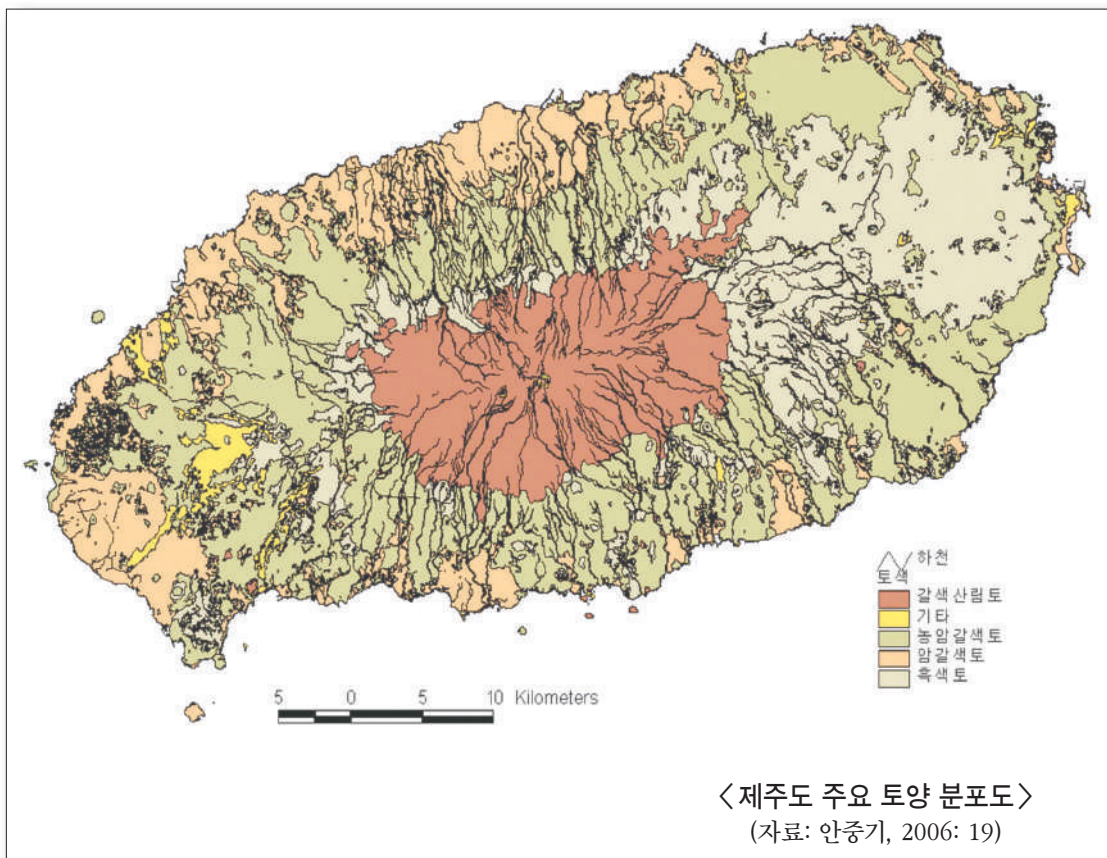
종인내는 사람들이 다니는 소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새미마을 사람들은 종인내를 통해 밭일을 하러 다니기도 하고 이웃마을에 다녀오기도 했다.

오랜 세월 거의 자연 상태로 있었던 종인내는 2007년 나리태풍 이후 위험지구로 지정되면서 2008년 하천 정비 공사를 마친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생명을 기르는 토양

제주도는 화산섬이다. 더불어 제주도의 토양은 대부분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도의 토양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산회토와 현무암풍화토로 나뉘어진다. 화산회토는 화산재(火山灰)와 화산쇄설물로 이루어진 토양이고, 현무암풍화토는 현무암이 햇빛, 공기, 물, 생물 따위의 작용으로 점차로 파괴되거나 분해되는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진 토양이다.

제주도의 주요 토양은 아래의 그림에서처럼 농암갈색토, 갈색삼림토, 갈색토, 암갈색토 등 크게 네 가지의 토색으로도 나뉘인다. 그 가운데 농암갈색토, 갈색삼림토, 갈색토는 화산회토이고, 암갈색토는 현무암풍화토다. 이들 가운데 농사가 가장 잘 되는 토양은 암갈





색토라고 한다.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진 토양이다 보니 형성시기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유기물을 포함하게 되어 화산회토보다 흙이 훨씬 기름지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농암갈색토, 흑색토, 갈색삼림토 순으로 이어진다. 그림 <제주도 주요 토양 분포도>에서 새미마을의 위치를 가늠해보면 비교적 농사가 잘 되는 토양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예전의 새미마을에서는 산뎡, 보리, 조, 콩 농사를 주로 했고, 감자와 고구마도 재배했으며, 한때는 유채와 수박 농사를 많이 했다. 새미마을 안에서의 토양은 이들 농작물과의 궁합에 따라 나뉜다. 콩은 마을의 어느 밭에서나 잘됐고, 제주에서 ‘산뎡’이라고 부르는 밭벼는 마을 중심지보다 위쪽에 있는 밭에서 잘됐으며, 아래쪽에 있는 밭은 토양이 비옥해 보리와 조가 잘 됐다. 그러나 이들 곡식류들을 재배하던 시절의 농사는 자급자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자급자족 농사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들어 유채를 재배하면서부터다. 유채 농사는 1970년대 초까지 왕성했었다. 유채와 더불어 수박, 배추, 무 등도 재배했



새미마을은 비교적 밭농사가 잘되는 토양을 지니고 있다. 특히 마을주민들이 ‘밭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배수가 잘 된다.

다. 특히 수박 농사로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 당시 제주도에서 수박 하면 동회천을 첫째로 꼽을 정도였다. 새미마을의 수박 농사가 잘되자 주변 마을에서도 수박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새미마을의 수박은 “천둥소리에도 수박이 깨진다”고 할 만큼 껍질이 얇았다. 더불어 맛이 참 좋았고, 큼직하기로도 유명했다. 그렇게 질 좋은 수박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농민들의 재배기술이 남달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이 “밭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할 만큼 배수가 잘 되는 토양 덕분이었다.

감귤 재배도 주변의 다른 마을에 비해 일찍 시작한 편이다. 초창기에는 집 주변 우영밭에 감귤나무를 몇 그루 심고 주변에 가시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못 따먹게 하려고 그랬지만, 당시는 감귤 값이 워낙 좋았으니 감귤나무가 그토록 귀한 대접을 받았던 것이다. 지금은 주민들 거의 모두 감귤과수원을 하고 있고, 소득도 감귤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을 입구에 있는 팽나무. 수백 년의 수령을 느끼게 한다.

마을과 함께 한 고목들

새미마을 안에는 눈에 띄는 고목이 몇 그루 있다. 팽나무, 산굴나무, 배롱나무 등이 그것인데, 저마다 수백 년은 묵었음직한 심상치 않은 자태를 지니고 있어 눈길을 끈다. 4·3 사건 이전에는 이들 나무 말고도 수령이 깊은 느티나무며 감나무 등이 적지 않게 있었다고 한다.

팽나무

제주사람들은 ‘폭낭’이라고 부르는 팽나무는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이다. 가을이면 1cm가 채 안 되는 둥근 열매가 맺는데, 등황색으로 익으면 단맛이 나서 아이들이 즐겨 따먹곤 했다.

팽나무는 옛날부터 풍수지리설에 따른 비보림(裨補林), 다시 말해 부족한 곳을 채우는 나무로 또는 방풍림으로 심어져왔다. 목재가 비교적 단단하고 잘 갈라지지 않아서 가구재로 많이 쓰이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재질은 풀기가 조금만 있어도 검푸른 곱광이가 끼고 곧 썩기 시작하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청결을 필요로 하는 도마의 재료로 가장 좋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예전에 ‘불찍’ 재료로 팽나무를 애용했었다. 불찍은 불을 피울 때, 부싷돌과 부시를 탁 두드려서 일으킨 불꽃을 옮겨 붙게 하는 매개용 도구다. 속이 무른 죽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썩어서 폭석폭석 부드럽게 된 팽나무 속이 가장 좋은 재료였다.

팽나무는 제주도 자연마을마다 한두 그루씩 있게 마련이다. 새미마을에서 특히 눈에 띄는 팽나무는 마을 입구에 있다. 마을사람들은 이 나무의 수령이 족히 5백 년은 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오랜 세월 탓에 한 쪽이 썩어 구멍이 제법 크게 나는 바람에 그 구멍 안을 들락거리며 놀기도 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주민들이 많다. 이 팽나무 못지않게 오래 된 팽나무는 당에 있는 신목이다. 당의 팽나무 이야기는 문화 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을회관 마당에도 팽나무가 한 그루 있다. 이 나무 또한 오래 전부터 마을아이들의 친



마을회관 앞에 있는 팽나무. 1950년대에 심은 것이라는데, 제법 크게 자라 넓은 그늘을 드리워 준다. 주변에 평상을 설치해놓아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구 역할을 했다. 새미마을 남자들은 거의 모두 어린 시절 이 나무를 오르내리며 놀았던 추억을 가지고 있다.

마을회관 앞에도 두 그루의 팽나무가 있다. 1950년대에 심은 것이라는데 유난히 잘 자라 주변에 제법 큰 그늘을 드리워준다. 나무 주변에 평상을 설치해놓아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

산귤나무

제주에서는 ‘산물낭’ 또는 ‘진귤낭’으로 부르는 산귤나무는 운향과에 속하는 귤나무다. 산귤은 옛날 제주도에서 재배되었던 다른 재래종 귤 종류와 더불어 진상되었던 품목 가운데 하나였다.

산귤은 지름이 3~5cm 정도로 다른 귤 종류에 비해 작다. 매우 향기롭고 껍질이 얇지만 씨앗이 많고 신맛도 강해 즐겨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예로부터 특히 껍질이 약재로 이용돼 왔는데, 주로 감기로 인한 기침, 가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시 도련동에 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산귤나무가 있는데, 수령이 250년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새미마을에도 그에 못지않게 오래되어 보이는 산귤나무들이 있다. 마을 어른들 얘기로는 수령이 적어도 200년은 넘었을 것이라고 한다.



울타리처럼 둘러 심어진 산귤나무





마을어른들 이야기로는 수령이 족히 200년은 넘었을 것이라는 산골나무. 4·3사건 때의 화마에도 살아남아 해마다 열매를 맺는다.

마을회관 옆에 자리한 집은 아예 산굴나무들을 울타리처럼 두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집의 뒤뜰에 4·3사건 때의 화마에도 살아남은 산굴나무 고목이 세 그루나 있다.

그런가하면 마을에는 ‘산물낭우영’이라는 옛 지명이 남아있다. ‘우영’은 텃밭을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이 ‘산물낭우영’이라는 곳에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산굴나무가 많았었다고 한다. 그리고 산굴나무 뿐만 아니라 병굴나무, 하굴나무, 땡유자나무 따위의 제법 오래된 재래종 굴나무들이 마을 곳곳에 꽤 있었다고 한다.

배롱나무

백일홍나무로 더 잘 알려진 배롱나무는 부처꽃과에 속하는 낙엽관목이다. 초본식물에도 백일홍이 있어 그와 구분하느라 ‘목 백일홍’이라 부르기도 한다. ‘배롱’이라는 이름은 ‘백일홍-배기룻-배롱’의 변천 과정을 겪어 지니게 됐다.

배롱나무는 제 이름대로 ‘붉은빛 꽃이 백일 동안 피어 있는 나무’란 뜻이다. 송이마

다 모두 백일 동안 계속 피어있는 게 아니라, 꽃대의 아래에서 위로 꽃이 피어 올라가면서 피고지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뜻 보면 계속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배롱나무의 꽃이 피는 시기는 7월에서 9월까지, 한창 더울 때다. 뜨거운 여름 내내 쉬지 않고 꽃을 피워내서인지, 붉은 꽃빛이 화사하면서도 처연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배롱나무는 나무껍질이 참 독특하다. 질감도 매끄러운 데다 옅은 갈색을 띠고 있다. 그





배롱나무. 수령 100년을 훌쩍 넘긴 고목이다. 긴 세월을 말해주듯 나뭇가지들이 서로 엉켜 붙어 있다.



리고 얇게 벗겨지면서 흰색의 무늬가 생긴다. 그런 나무줄기가 별거벗은 몸을 연상케 하기도 하고, 뼈를 닮아 보이기도 한다고 해서 예로부터 집안에는 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찰의 뜰이나 서원 주변에는 많이 심었던 나무다. 배롱나무가 껍질을 다 벗어버리듯 승려들은 세속의 때를 완전히 벗어 해탈하고, 공부하는 이들은 모든 행동과 생각을 깨끗이 하



배롱나무는 묘소 양 옆에 한 그루씩 자리해 있는데, 왼쪽의 나무는 도로가 생기면서 일부가 잘려버리는 바람에 잘 자라지 못했고, 오른쪽 나무는 왕성하게 자라 해마다 여름이면 붉은 꽃을 피워낸다.

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묘소에 심어진 배롱나무를 많이 볼 수 있다. 새미마을 안에서 눈에 띄는 배롱나무 고목 역시 묘소에 심어진 것이다. 배롱나무 고목을 좌우에 거느린 묘소의 비석을 살펴보니 양친 허씨 성을 지닌 여성이 그 주인이다. 조선 정조(1776~1800년 재위) 때 태어나 고종(1863~1919년 재위) 때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돼 있다. 더불어 이곳에 있는 배롱나무의 수령도 짐작된다. 당시 어린 나무를 심었다고 해도 지금의 수령이 100년을 훌쩍 넘긴 셈이다. 긴 세월을 말해주듯 나뭇가지들이 서로 엉키다 못해 살을 붙인 채 자라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배롱나무를 ‘죽금나무’라고 불렀다. ‘죽금’은 ‘간지럼’을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간지럼을 타는 나무라는 것이다. 정말로 배롱나무 줄기의 하얀 무늬를 손톱으로 긁으면 신기하게도 그 부근의 가지부터 마치 간지럼을 타는 듯 나무 전체가 움직인다.